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4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4939호 2022년 5월 13일 금요일

[라이프]
"식중독 막아라"
외식업계
위생관리 박차
L1

취임 만찬장 주름잡은 한국 와인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⑭⑧

(왼쪽부터)너브내 스파클링 애플, 니모메, 허니문, 붉은진주머루, 샤토미소로제스위트. /각 와이너리

쉬운 답을 어렵게 찾아갈 때가 있다. 한국 음식과 어울리는 와인을 찾는 일이 딱 그렇다.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기 시작한다. 도대체 매콤한 제육볶음은 물론 식탁에 자주 오르는 나물, 아니면 순대, 육회 같은 가벼운 한식 안주거리와는 어떤 와인이 어울릴까. 자칫하면 뭔가 비려지고, 아니면 매운 양념과 와인이 만나 입에 불이 난듯 화끈거리는 느낌이다. 답을 찾아낸다고 해도 맛과 향을 배가시키는 제대로된 궁합은 아니었다.

정답은 오히려 눈 앞에 있었다. 피자엔 이탈리아 와인이, 프렌치 요리엔 프랑스 와인이 제격이듯 간장과 고추장 양념이 많은 한국 음식엔 한국 와인이었다. 그럼 관건은 높아진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만한 토종 와인이 있느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의 만찬주가 공개되자 업계가 술렁였다. 구색 맞추기용으로 전통주 하나는 들어가 있겠지 하던 예상과 달리 리스트에 오른 것은 전통주, 그것도 주류였던 도수 높은 증류주가 아니라 와인이 주를 이뤘다.

식전 스파클링 와인부터 디저트와 함께할 달달한 와인까지 퓨전 한식에 맞춰 완벽한 코스가 짜여졌다. 한식에 반주로 올릴만한 토종 와인이 있겠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말끔하게 걷어낸 셈이다.

선택된 와인들은 강원도부터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를 거쳐 제주도까지 소위 각 지역의 테루아를 느낄 수 있도록 해놨다.

먼저 스파클링 와인 '너브내 스파클링 애플 라이트'다. 와이너리 샤또나드리가 강원도 홍천에서 생산된 사과로 애플 와인이다. 일반 과실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사과를 착즙해 1차로 발효시키고, 다시 압력탱크에서 2차 발효를 시켜 스파클링 와인으로서 완성도를 높였다.

'허니문'은 양평의 꽃꿀로 만든 벌꿀 발효주다. 발효를 위해 필요한 당분이 충분하다보니 다른 첨가물을 넣을 필요가 없었고, 산뜻하고 은은한 단맛을 낼 수 있었다. 3~5도 사이로 차갑게 식전주로 마시기 좋고, 어떤 음식과도 두루두루 잘 어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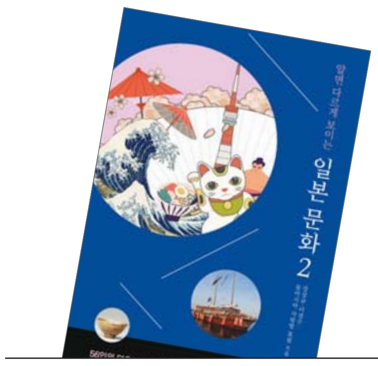
제주 '니모메'는 유일하게 쌀로 만든 약주다. 쌀을 주 원료로 하고, 제주의 향은 담을 귤피를 이용해 술을 빚었다.

'붉은진주머루'는 덕유산 자락에서 자란 산머루로 만들었다. 도수는 12도 안팎이다.

다른 와인들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만든 과실주였다면 '샤토미소로제스위트'는 우리 포도로 만든 토종 와인이다. 전 세계적으로 와인양조 대표품종으로 꼽히는 것들은 우리 나라에서 잘 자라기가 쉽지 않다. 대신 식용 포도로 맛이 좋은 캠벨로 와인을 빚었다. 식용 포도로는 좋을 와인을 만들 수 없다는 기존 편견과 달리 맛이 부드럽고, 한국 음식과 궁합이 좋다. 특히 매운 음식이나 디저트와 어울린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닮았지만 다른 일본 문화 들여다보기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2

이경수, 강상규, 동아시아 사랑방 포럼 지음/지식의날개

작년 상반기 출간돼 단숨에 베스트셀러에 오른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현지에서도 관심을 보일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21세기 조선통신사를 꿈꾸는 '동아시아 사랑방 포럼'에서 공부하고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문화를 다룬 책이다.

일본의 역사, 정서, 교육, 음식문화, 스포츠, 애니메이션 등 1권에서 다 소개하지 못한 다채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은 두 번째 책이 나왔다.

책에서 ▲최남단 오키노토리시마 ▲문화 속 고양이 ▲데릴사위 전통 ▲고교야구 고시엔 ▲커피문화 ▲스모와 경마 ▲사립미술관 등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와 닮았지만 확연히 다른 일본을 만나게 된다.

장수하는 기업이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그 비결로 데릴사위 전통을 들 수 있다. 세계적인 일본 자동차 회사인 스즈키는 창업주를 제외하고 2~4대 사장이 모두 데릴사위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양자' 하면 어린아이를 떠올리지만 일본은 20살 이상 된 어른이 양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자식은 선택할 수 없지만 사위는 선택할 수 있다'는 말처럼 일본 기업 존속의 밑바탕에 자리한 데릴사위 문화에는 특유의 실용주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본에서 경마는 도박이지만 스포츠로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어 마권을 사지 않고 경마를 즐기는 '경마팬'이 흔하다. 시대를 넘어 사랑받았던 하이세이코, 오구리캡, 딥임팩트 등 전설의 명마와 함께 생애 전적 113전 0승의 하루우라라도 유명하다.

오츠카제약그룹이 1988년 창업 75주년 기념으로 개관한 오츠카 국제미술관은 세계의 명화를 원본과 같은 크기와 색채로 복제하고 나루토 해협의 모래를 사용해 도판화로 재현한 도판명화 미술관이다.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을 실물 크기로 완벽하게 재현한 '시스티나홀'과 피카소의 대작 '게르니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등이 유명하다. 이는 카피를 통해 오리지널만큼의 대중성을 이끌어낸 일본 문화의 사례로 꼽힌다. 이 외에도 여름 내내 일본 열도를 하나로 만드는 고교야구 고시엔, 영화 '너의 이름은'에서 재창조된 일본의 고전문학 등 흥미로운 일본 이야기가 가득 담겼다. **592쪽. 1만9500원.**

/김현정 기자 hjk1@

시선 과잉 사회

정인규 지음/시크릿하우스

디지털 시선에는 흔적이 남는다. 좋아요, 유튜브 영상, 광고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에 시선이 저장된다. 소셜 미디어의 유저들은 타인을 훔쳐봄으로써 서로를 쓰다듬는다. 노출을 통해 누구든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유튜브 드림'에는 새로운 경쟁 원칙이 생겼다. 재미있는 사람이 생존한다는 것이다. 재미없는 채널은 조회 수를 올릴 수 없으며, 존재 가치가 무의미해진다. 유튜브의 시선은 자본과 직결된다. 많이 보여질수록 많이 번다. 관음과 노출은 새로운 형태의 소비·생산 활동이 된 지 오래다. 사람들은 서로를 소비한다. 책은 아이 콘택트를 통한 관계의 회복을 제안한다. 서로 다른 누군가를 우리 속의 너로 인정하는 책임감, 진실을 고민하는 신중함을 되찾아야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216쪽. 1만5000원.**

가난의 도시

최인기 지음/나름북스

노점상은 열심히 생계를 꾸리는 이웃 시민이자 빈곤한 사회적 약자이지만, 노점상의 삶과 미래에 관한 사회적 인식은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이다. 군부독재에 저항하며 세력화하기 시작한 노점상 투쟁의 기록은 곧 민중운동의 기록이기도 하다. 책은 도시의 변화 발전과 더불어 노점상의 역사를 설명하며, 1989년부터 2017년까지의 노점상 열사들의 죽음을 파헤친다. 1989년 마차를 가져간 공무원들 앞에서 분신하고 "이 몸 불살라 노태우 정권에 경고한다"는 유언을 남긴 거제도 노점상 이재식 등 사회가 주목하지 않았던 희생을 재조명한다.

330쪽. 1만6000원.

재벌 공화국

박상인 지음/세창출판사

1997년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대기업에 경제력을 집중했다. 정부 주도-재벌 중심 경제 발전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지난 이후에도 전략을 바꾸지 않은 탓에 재벌 대기업을 향한 과잉 투자가 계속해서 이뤄졌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됐다. '민주 공화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재벌 공화국'으로 바뀌었다. 이들은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꾀했고, 수많은 하청기업을 거느리며 이익 증대를 위해 수시로 단가를 후려쳤다.재벌로 표상되는 기업은 철저히 기업을 위해 존재할 뿐,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자는 말한다. **264쪽. 1만6000원.**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제주도체육회, 임원 업체들과 수천만원 수의계약 들통나

▲한여름 프로야구 낮 경기 시작…고척돔 주말 경기 시간 변경 /사진 뉴시스

▲최지만, '시즌 타율 3할 붕괴' 오타니와 투타 맞대결 완패

▲프로농구, PO페이크 파울 올시즌 전체 전년 대비 50% 넘게 줄어

▲임성재 'KPGA 코리안투어 대회' 코로나19 확진으로 기권

▲피겨 신지아, MBN 여성스포츠 4월 MVP…"올림픽 메달이 꿈" /사진 뉴시스